

## 미국, 이란과 시리아도 엄중 경고하고 나서

### □ 미국, 세계 여러 나라로 비난의 화살 돌려

- 이라크의 이권을 놓고 미국 정부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의 반대를 무시하며 전쟁에 돌입하였으나, UN의 틀을 벗어난 한 계로 전세계적인 반전여론에 직면하고 있음.
- 그러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속전속결 전략은 이라크의 예상치 못한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고, 국내 언론으로부터도 초기작전 실패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신경이 예민해진 미국 고위관리들은 러시아를 비롯한 舊동구권 국가들이 이라크에 군사지원을 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한데 이어 주변 시리아, 이란 등에도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음.
- 특히, 럽스펠드 美국방장관에 이어 파월 美국무장관도 시리아와 이란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이라크전 이후의 상황전개, 미국의 확전 가능성 등과 관련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 舊동구권 국가들 군사적 원조 의심받아

- 미국은 이라크의 강력한 저항의 배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고 등 舊 소련 동맹국들의 군사적 협조가 있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음.
- 미국은 러시아의 무기업체들이 위성추적시스템, 코넷 대전차 미사일 등 최신행 첨단무기들을 이라크에 판매하였는데, 러시아 정부가 이를 방조함으로써 연합군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고, 러시아는 이를 극

구 부인하며 양국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음.

- 또한, 우크라이나는 스텔스機 킬러로 명성을 날린 '콜추가' 조기경보체제\*를 이라크에 판매한 혐의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우크라이나의 쿠츠마 대통령은 전직 경호원의 폭로로 콜추가 시스템 4기를 이라크에 판매하는 데 직접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음.

\* 소련의 해체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 귀속된 방산업체인 Topaz社가 개발한 항공기 추적·탐지장비로, 지난 1999년 NATO의 유고공습 시 美공군의 F-117 스텔스기가 격추되면서 위력을 발휘하였음.

- 또 다른 舊蘇국가인 벨로루시의 루카센코 대통령도 반미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이라크에 군사기술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음.

- 그밖에 미국 및 유럽 군대와 교전경험이 있는 유고연방\*도 군사전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리아, 헝가리, 노르웨이, 터키 등 각종 장비와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음.

\*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합의에 따라 국명이 세르비아-몬테네그로 국가연합으로 변경되었음.

- 미국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으나 1980년대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이 아프간 반군을 지원함으로써 소련이 큰 애로를 겪은 것과 같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 □ 미국, 시리아에 연이은 경고 메시지 보내

- 지난 3월 28일 럽스펠드는 시리아 정부가 시리아를 통해 야간투시경 등 많은 군사장비들이 이라크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목인함으로써 연합군에 적대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음.
- 뒤이어 3월 30일에는 파월이 미·이스라엘 협력위원회(American 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의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시리아에 대해 자신들

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미국의 다음 목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던 시리아 정부도 처음에는 전황이 불리해지자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자국을 의심한다며 미국의 협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며칠 뒤 중동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이라크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미국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시리아, 미국의 또 다른 목표가 될 가능성 있어

염두에 둔 미국의 의도가 깔린 행동으로 분석되고 있음. 특히 비둘기파를 대표하는 파월까지 비나대열에 합류한 것은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공격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음.

- 시리아의 적대적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군사적 행동보다는 시리아 제재법\*을 통한 경제제재나 이집트, 요르단 등 친미성향이 시리아국기토의 주요한 이교적 아바\* 스다의 주요한 기느서이 크 저오크 보임.

\* 지난해 Syria Accountability Act라 불리는 규제법안이 美의회에 제출되었으나, UN결의안 1441호 통과를 위한 시리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파월 장관의 만류, 9·11 테러 이후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한 점 등이 감안되어 법 추진이 보류되었음.

\* 최근 반전시위로 많은 중동국가 정부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극렬한 시위를 서도하는 시리아에 대해 이집트, 요르단 등이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음.

- 그러나 전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미국은 이라크로 들어오는 트럭 등 운송수단과 Tartous, Latakia 등의 항만에 대해 공습을 간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분석가들은 파월이 親이스라엘 단체의 회합 장소를 선택하여 이런 언급을 한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의 중요한 중동정책 중 하나인 이스라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언제든지 시리아에 대한 군

사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임. 또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시리아가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를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미국의 사정권에 근접하게 된 시리아는 강경한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이란도 불편한 상황에 처해

- 중동 지역의 군사강국으로 미국이 강력하게 견제해 온 이란도 시리아와 함께 럼스펠드와 파월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우려했던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 먼저 럼스펠드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라크 시아파 무장단체인 바드르 집단(Badr Brigade)이 이라크로 들어와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하였음. 뒤이어 파월은 이란이 테러지원을 중단하고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체 개발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음.
- 하라지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엄중한 중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라크 문제는 UN의 틀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으며, 바드르 집단이 국경을 넘지 않았다고 미국의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음. 또한, 국경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이 지역의 문제아였던 후세인의 제거는 나쁘지 않으나, 초강대국 미국이 아프간에 이어 이라크 장악에 나섬에 따라 이란은 불가피하게 앞뒤에서 미국의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었음. 특히, 자신들이 미국의 다음 공격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이란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며 이라크 전쟁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

## □ 미국의 우려가 이란에 미칠 영향

- 바드르 집단이 구체적으로 연합군에 위협이 되고 있는 조짐은 없으나, 미국은 후세인 체제가 붕괴된 후 이란의 조정을 받는 이들의 존재가 미국의 신질서 구축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사전에 이 집단의 활동공간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임.
  - 더욱 중대한 미국의 우려는 이란이 구체적으로 핵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심임. 이란은 Natanz에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이곳을 방문했던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도 2005년에는 우라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이란 정부는 IAEA의 정밀한 사찰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음.
  - 당장의 일은 아니겠으나, IAEA가 이란 서브세 키베어시 미그시 시카시 핵개발을 추진한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을 경우 Natanz와 그 밖의 핵개발 장소로 의심되는 지역의 폭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또한, 미국은 이란·리비아 제재법(Iran Libya Sanction Act: ILSA)\*의 강화를 통해 이란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미국은 이 법을 위반한 기업들에게 전후 이라크에서의 복구사업 및 석유사업 참여를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데, 석유 메이저 중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프랑스의 TotalFinElf, 영국·네덜란드의 Royal Dutch-Shell, 이태리의 Eni 등임.
- \*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된 이란과 리비아를 일방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되어 5년 시한으로 2001년 다시 연장되었으며, 일정규모 이상 이들 나라와 거래한 외국기업(주로 유럽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유럽기업들은 이 법을 무시하고 미국과 거래활동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의 의도는 이라크 전쟁에 강력히 반대해 온 프랑스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TotalFinElf를 징계하는 것임. 그러나 Dutch-Shell과 Eni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전쟁을 지지했던 영국, 네덜란드, 이태리의 반발이 예상되고, TotalFinElf만을 징계한다면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임.

## □ 향후 미국과 이란 관계

- 이란의 개혁파 정부는 꾸준히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을 추구해 왔으며, 그 결과 많은 유럽국가들과 관계정상화의 성과를 거두었음. 한편, 미국도 하타미 대통령의 개혁노선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이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으로 양국간 거리는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음.
- 개혁파 정부를 지지한 다수의 이란인들은 미국과의 관계악화가 가져올 치명적인 결과를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향후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미국의 시각과 이란 내 개혁파 위상 변화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일부에서는 이라크에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체제가 수립될 경우 이는 중장기적으로 이란에도 강력한 정치·사회 변혁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개혁파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이라크 전쟁이 종료된 후 시리아, 리비아, 이란, 북한 등 소위 불량국가들의 문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시각이 좁아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란의 희망과 달리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조속한 해빙무드를 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물리적으로 이란에 근접한 만큼 양국간 긴장은 높아질 것으로 보임.

책임연구원 고재호(☎3779-6663)

E-mail : kohjh@koreaexim.go.kr